
기획논문

제국, 문명의 거울

“제국, 문명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 특집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공동연구 “제국과 도시”의 결실이다. 2007년에 시작한 ‘문명연구’의 아젠다는 “문명의 허브를 향하여,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구상”이다. 사업 초기에 ‘문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념과 번역”이라는 공동연구가 열렸다. 문명으로 번역된 Civilization의 의미가 문제였다. 18세기에 만들어진 Civilization이라는 말은 서양의 팽창과 함께 신대륙과 아시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서양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포장하는 미사여구로 비판되기도 했지만, 서구가 거둔 승리의 비결로 해석되었으며, 모방하고 경쟁해야 할 전범(典範)처럼 받아들여졌다.

3년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문명 개념의 탄생에서부터 번역에 이르는 과정을 두루 탐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더 캐야 할 무엇이 있다는 뒤끝이 강렬했다. 특히 문명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태는 문명이 배제하고 폄하하는 야만의 행태보다 더 야만스러웠기 때문이다. 문명은 내외의 이질적인 요소를 동질화시키며 표준으로 행세하려고 한다. 차이를 인정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보다는 차이를 지우고 강자의 기준을 보편적인 것이라고 강요하려는 폭력성을 발휘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문명의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공동연구가 이어졌다. 문명의 안과 밖을 살펴보니, 문명은 서구뿐만 아니라 서구 바깥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있

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명이 폄하한 야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요 문명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문명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각화되었고, 문명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 싸우고 승자가 패자를 강압적으로 지우는 방식으로만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물음이 제기되었다.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문명' 그러니까 Civilization 개념 자체에 있었다. Civilization의 어원을 분석하면 그 뿌리에는 '도시'(Civitas)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Civis)이 있다. 도시는 부와 권력, 제도, 문화가 집중되며 성립되었고, 주변을 통제하는 구심점이며 팽창의 출발점이 되었다. 실제로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에서 발생했고,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의 도처에서 도시화가 지속되었으며, 지금도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산다. 도시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이며, 도시는 문명의 요람이자 삶의 공간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도시에 관한 사상가들의 사유를 검토하는 공동연구도 이루어졌다.

“제국과 도시” 공동연구는 HK문명연구사업단이 진행했던 일련의 공동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사업단 전체 연구 아젠다에 맞게 “문명의 허브를 향하여” 걸어온 연구의 행보가 문명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제국에 이른 것이다. ‘Civilization’의 뿌리에는 ‘도시’가 있고, 도시는 문명을 이루면서 주변을 통제하는 구심점이며 팽창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확장의 정점에서 형성된 제국은 넓은 지역과 시대를 아우르는 문명을 이루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였다. 그래서 제국은 결국 “문명을 비추는 거울”(Mirror of Civilization)이며, 문명의 허브를 향하여 지난한 연구의 여정을 밟는 연구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제국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면서 제국이 무엇이며, 그것이 문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도시는 문명과 제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다루며,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인문학적 관심에서 제국이 인문학에, 인문학이 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에 제국을 형성하며, 제국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며 형성하는지를 물었다. 광범위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장기간에 걸쳐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던 권력 단위에 역사는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제국은 해묵은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구상하기 위한 인문학적 상상력의 보고(寶庫)이다.

오늘날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가는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에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제국"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유럽연합의 프로젝트와 제3세계의 지역화에서 제국의 양상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과 삼성 등의 글로벌 기업의 확장에서도 제국주의적 야심과 전략을 읽어낼 수 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등 제국을 경험한 강대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제국의 속성과 생리를 통찰하고 있어야 한다.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의 활로도 제국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찾을 수 없다. 제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확장만은 아니다. 대규모의 공간 속에서 경제적인 생태계를 새롭게 창조하며 이질적인 요소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동질화시켜 나가는 문화적인 융합과 혼용의 전략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런 제국의 속성을 역사 속에서 찾아 현재의 문제를 타개해나갈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제국을 경험하고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강대국의 한 가운데에서 분단된 채 서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교계지 한반도에서 5,000년의 역사를 곳곳이 견뎠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인문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한갓 문명의 도구가 아니라 문명의 중심인 인간이 인간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삶과 사회와 역

사를 구성하는 데에 우리의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문명의 허브를 구축하고 한국인문학을 새롭게 구상하려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던지는 물음이다. 이에 대한 대답의 편린이 이어지는 네 편의 논문에서 반짝인다.

김 현